

A. 베스투쨌프-마를린스키의 『아말라트-벵』에 나타난 러시아 제국주의

김 성 일
(청주대학교)

I. 들어가는 말

푸쉬킨이 『카프카스의 포로』를 통해 카프카스의 문학적 정경과 그곳 부족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른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카프카스 주제를 창조하였다면,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베스투쨌프-마를린스키(A.A. Бестужев-Марлинский)는 카프카스 주제를 받아들여 이를 확장시킨 작가들 중의 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 푸쉬킨이 카프카스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베스투쨌프-마를린스키를 비롯한 푸쉬킨의 계승자들은 그 영역에 지도를 그렸다고 말할 수 있다. 푸쉬킨의 동시대인인 베스투쨌프-마를린스키는 카프카스 주제를 특징 짓는 여러 작품들을 남긴 당시 매우 인기 있던 작가였다. 제카브리스트 반란에 가담한 이유¹⁾로 시베리아를 거쳐 이 지역에 유배된 베스투쨌프-마를린스키는 카프카스 지역 종족의 많은 언어와 관습에 정통했다. 푸쉬킨이 러시아 독자들에게 카프카스를 소개했다면, 베스투쨌프-마를린스키는 보다 광범위한 지식으로 이 지역과 이곳 주민들에 대한 훨씬 더 상세하고 믿음만한 모습을

1) 이에 대해서는 Lauren G. Leighton, *Alexander Bestuzhev-Marlinsky* (Boston: Twayne Publishers, 1975), pp. 19-28.

독자들에게 제공했다.

1830년대 이후 베스투쨌프의 작품의 거의 절반이 카프카스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카프카스는 당시 러시아의 거친 서부라 할 수 있는 곳으로 작가 자신이 유배되어 군인으로 복무했던 곳이다. 그의 소설, 설화, 신문기사 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인 『아말라트-벡』(Аммалат-бек)은 1832년에 출판되었으며 베스투쨌프는 이 이야기를 “진짜 카프카스 이야기”(Кавказская быль)라고 간주했다. 이 작품은 한 실제 인물과 주로 1819년에서 1823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련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²⁾ 전쟁과 사랑, 배신이라는 평면적인 구성을 훨씬 뛰어넘어 『아말라트-벡』을 통해 베스투쨌프는 러시아 독자들에게 러시아 제국의 남쪽 지역의 민족지학적인 초상을 제시해주고 있다. 유형지에서의 군 생활을 통해 베스투쨌프는 아주 이국적인 환경 속에 폭 빠져들게 되었고,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러시아인들에게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과 민족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들을 생각해보게끔 하는 작품들을 써낼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 소설은 매우 친 러시아적이다. 소설은 러시아의 주요 목표가 외교적 인간적 수단을 통해 카프카스를 문명화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를린스키는 카프카스에서의 러시아군의 주둔을 어떤 긍정적인 것으로서 묘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개하고 퇴보된 사람들을 평화롭게 기독교화하는 것이다. 마를린스키는 아흐메트-칸의 인물을 통해 카프카스인들의 대다수가 러시아 문화와 종교의 친절한 공여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그것을 극단적인 폭력으로 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아말라트-벡의 인물을 통해 심지어 러시아의 목적에 대해 동정적이며 교육과 가르침에 대해 개방적인 아주 소수의 카프카스인들조차도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카프카스인들을 문명화시키는 평화로운 시도는 단지 러시아인들에게는 배신과 비극 속에서 끝나쳐질 것이며 문명화가 그들 동방세계의 나머지 위에 세워질 수 있기 전에 그들을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Susan Layton, *Russian Empire and Literature: Conquest of the Caucasus from Pushkin to Tolsto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4, pp. 112-113. 참조.

그러나 마를린스키는 단순히 모험과 비극의 카프카스 이야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 지역과 이곳 사람들에 대한 러시아의 무지에 대해 불평했으며 자신의 작품으로 독자들을 교육시키길 원했다.³⁾ 만일 푸쉬킨의 『카프카스의 포로』가 러시아 독자에게 카프카스를 실제적으로 처음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마를린스키의 작품들, 특히 그의 가장 인기 있고 성공적인 작품인 『아말라트-벡』은 그들의 모든 삶의 측면과 그 세밀한 부분들을 제공함으로써 카프카스인들에 대한 최초의 제시를 보다 균형 잡힌 이해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소설의 성공은 카프카스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좋던 나쁜던 간에 『아말라트-벡』은 러시아인들의 여러 세대를 사로잡은 카프카스와 그곳 사람들의 이미지를 창조하거나 혹은 적어도 강화시켰다.

본고는 비극적 주인공 아말라트-벡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베르홉스키의 러시아 제국주의와 아흐메트-칸의 카프카스 민족주의 간의 긴장과 갈등관계, 그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러시아 제국주의 시각에 비친 카프카스

『아말라트-벡』은 다게스탄 벡(бек)인 아말라트와 그의 투쟁 이야기이다. 그는 특히 아바르 지역⁴⁾ 사이의 지방 거주지에 대한 정책과 침략하는 러시아인에 의해 일부 정복된 카프카스의 변화하는 지형을 조정하기 위해 투쟁한다. 아말라트는 아흐메트-칸(Ахмет-хан)이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그에게 봉사하는 사람들과 처형당할 자신을 구해주고 그의 보호아래 둔 러시아인 대령이자, 친구인 베르홉스키(Верховский)에 대한 맹세 사이에서 분열된다.⁵⁾ 아흐메트

3) Ф.З. Канунова. *Эстетика русской романтической повести (А.А. Бестужев-Марлинский и романтики-беллетристы 20-30-х годов XIX в.)*. Томск, 1973, с. 187.

4) 다게스탄과 체첸의 사람 거주 지역을 말함.

5) 아말라트와 아흐메트는 같은 민족 집단 출신이 아니다. 아흐메트는 아바르인이며 아말라트는 단순히 다게스탄 출신의 타타르인으로 언급된다. 두 사람 다 오늘날

는 러시아인의 침략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교도에 대항한 전쟁을 자신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한다. 반면에, 베르홉스키는 아말라트가 계몽되기를 희망하면서 그를 친절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쳐주고 교육시킨다. 상황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아흐메트의 딸 셀타네타(Селтанета)이다. 아말라트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결혼하고자 한다. 아흐메트는 딸을 침략자의 친구와 결혼시키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아말라트의 지휘 아래 있는 사람들을 러시아인에게 잃는 것 역시 원치 않는다.

자신의 딸 셀타네타의 구혼이 아말라트가 자신의 은인인 베르홉스키에 대한 맹세를 파괴할 만큼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자, 아흐메트-칸은 베르홉스키가 삼할⁶⁾의 요청에 따라 그를 체포하여 시베리아로 보낼 것을 결정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만들어 아말라트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끔 만든다. 그는 아말라트에게 베르홉스키의 머리가 자기 딸을 신부로 사는 값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러한 베르홉스키의 배신에 대한 유일한 답은 살인이라고 말한다. 자기 친구의 배신에 망연자실하고 격앙된 아말라트는 베르홉스키를 죽이고 칸에게, 보다 중요하게는 셀타네타에게로 날아간다. 아말라트는 임종을 맞이한 칸을 발견하여 베르홉스키의 머리를 그에게 보여준다. 하지만 칸은 즐거워하기는커녕 아말라트를 저주하며 그의 적과 평화를 맺을 때라고 말한다. 셀타네타를 포함한 칸의 가족도 아흐메트-칸의 경고에 따라 아말라트를 거부한다. 아말라트는 전투와 내세에서의 지위를 위해 모든 인간적 애착을 경멸하는, 신성한 전사의 한 유형인 아브렉(абрек)으로서 죽음을 찾아서 곧장 떠난다. 1828년 아나파(Анапа) 전투에서 아말라트는 심한 부상을 당해 젊은 포병장교에게 포로로 잡힌다. 젊은 장교가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명령하여 이루어진 수술에서 깨어났을 때 아말라트는 그 사람이 이전 자신의 친구인 베르홉스키라고 생각했다. 이 충격은 그를 죽이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포병장교는 베르홉스키의 동생이었다.

다게스탄이라고 부르는 지역 출신이다. 그러나 텍스트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흐메트가 산에 거주하는데 반해 아말라트는 산기슭 언덕에 자리한 덜 울퉁불퉁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

6) 삼할(шамхал)은 다게스탄에서 지방 통치자의 명칭으로서 벡(бек)보다는 지위가 높다.

『아말라트-벡』에서 그려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행동반경은 카스피해로부터 흑해, 다게스탄에서 카바르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를 통해 마를린스키는 독자들에게 그곳 지리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다 명확한, 지역으로서의 카프카스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카프카스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이 소설의 사건의 대부분은 다게스탄에서 일어난다. 다게스탄은 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체첸과 서쪽으로는 그루지야와, 남쪽으로는 아제르바이잔과 동쪽으로는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장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아말라트-벡』은 푸쉬킨의 『카프카스의 포로』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뒤덮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를린스키는 보다 넓고 보다 자세하게 카프카스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며 러시아 독자들에게 이 지역의 주요한 장소들을 소개시켜주는 데 성공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마를린스키의 『아말라트-벡』은 푸쉬킨의 『카프카스의 포로』가 한 것보다 카프카스 사람들의 보다 더 큰 다양성을 특징화시켜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그룹은 다게스탄인(아말라트와 그의 주민들)과 아바르인(아흐메트-칸, 쉘타네타, 그리고 그들 주민들)이다.

『아말라트-벡』은 러시아-카프카스 전쟁에 관한 두 상반되는 견해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제공한다. 우선 이 지역의 저항 지도자이며 전쟁에 대해 어떤 평화적 종결도 격렬하게 반대하는 아흐메트-칸이 있다. 그는 러시아인들에 대해 싸운 많은 이름 없는 카프카스인들을 대표한다. 그리고 칸에 상응하는 러시아인으로 예르몰로프가 있다. 그는 카프카스인들이 다시는 러시아 점령에 감히 반대하지 못하게끔 하기위해 자신의 잔인한 전술을 통해 여러 지역에 공포심을 주입시켰다. 그는 카프카스인들과 싸우는 많은 러시아인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둘 다 분쟁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력의 사용이라는 대다수의 의견을 나타낸다. 이 의견에 반대하는 인물은 아말라트와 베르홉스키이다. 그들도 적극적인 전쟁 참여자이다. 그러나 둘 다 이 두 대립되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에 다리를 놓고자 하며 평화적인 매듭을 찾고자 한다. 그들은 소통과 협력에 의해 세워지는 보다 문명화된 접근이 이 분쟁을 평화롭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을 대표한다.

베스투쎌프는 아말라트-벡 속에서 전혀 다른 두 문명 사이에 위치한 지방

의 한 인물의 모습을 그린다. 그의 초상은 그것이 지닌 객관성 때문에 인상적이다. 베스투체프는 아말라트의 행동들을 관대히 용서하지도, 오만무례하게 다루지도 않는다. 베스투체프는 지방의 주민들을 갈라놓는 갈등하는 충성심을 높이 산다. 그가 그려내는 아말라트의 모습은 그러한 갈등을 조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자신의 통제를 넘어선 세력들에 의해, 운명을 포함하여, 불운에 처한 아말라트는 고전적인 비극적 인물이다.

엄격하게 구조화된 원근법으로부터 볼 때 아말라트는 베르홉스키와 (그리고 그의 배후에 예르몰로프) 아말라트-벡 그리고 술탄 아흐메트-칸이라는 세 축의 인물 스펙트럼에서 갈등의 중심점을 나타낸다. 이 연속체는 아말라트의 충성을 두고 경쟁하는 일련의 다른 대조점들을 보여준다.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베르홉스키	아말라트-벡	술탄 아흐메트-칸
러시아		지역 부족
러시아 정교회		이슬람
법과 질서		무정부적 자유
문명		무지
정직		교활
용서		복수
국가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

처음의 두 대조사항을 배제한다면 이 표는 어떤 것이 아말라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어떤 것이 나쁜 영향을 주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베르홉스키는 거의 신화적이고 긍정적인 인물인데 반해 술탄은 전적으로 무뢰한이다. 만약 그들의 태도와 행동들이 충분한 단서가 되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목소리는 두 인물에 대해 명백한 코멘트를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아말라트의 양심 역할을 하는 사피르 알리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분명합니다, 아말라트 벡, 그러나 베르홉스키는 정말이지 그의 진실과 선량함을 위해서 기도라도 드리는 것이 괜찮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할 타타르인이 단 한 명이라도 과연 있었나요?... 그를 위해 영혼을 내주지

않을 군인이 과연 있었나요?”⁷⁾ 전지적인 작가 자신이 술탄의 이야기를 한다. “그는 음모로 친구를 속이고 속된 비방과 사악한 목적을 위해 그러한 사람을 고용하면서 자신이 어떤 이름을 받아 마땅한지 생각하지 않았다.”⁸⁾

마를린스키의 화자는 카프카스의 문화, 관습, 관례 등을 독자들이 확신할 수 있게끔 권위와 신뢰를 갖고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화자만이 독자들에게 민족으로서 카프카스인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유일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베르홉스키는 종종 자신의 약혼녀에게 그들의 개성과 심성을 묘사해주려고 한다. 이점에서 그의 결론의 다양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그의 묘사는 이 소설에서 발견된 카프카스인에 대한 전반적인 묘사에 부가된다. 한 편지에서 베르홉스키는 아말라트의 행동과 개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그는 민족으로서 카프카스인들의 심리분석을 시작한다.

그는 읽고 쓰기에 열중했습니다. 난 열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의 모든 희망과 번덕, 열망은 참을 수 없는 격정적인 열정이기 때문 입니다. 유럽인이 자유분방한 혹은 보다 적절하게 말해서 아시아인의 굴레를 벗은 열정을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아시아인의 의지는 유일한 희망의 한계였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가끔류나 혹은 야생의 짐승, 그러나 코에 꼬투레를 뚫고 발톱을 짧게 자른, 단정하게 줄을 맞춰 춤추는 것을 습득한, 길들어지고 온순한 짐승이라면 동양의 열정은 호랑이나 사자와 같이 자유롭습니다. 아말라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의

7) Ангелы и в небе наперечете, Амалат-бек, а Верховскому, право, хоть молиться можно за его правду, за его доброту. Есть ли хоть один татарин, который бы сказал про него худо?.. есть ли солдат, что не отдаст за него души?..

A.A. Бестужев-Марлинский. *Кавказские повести*. СПб., 1995, с. 68. 이하 작품 인용 시, 이 판본에 따라 본문에는 우리말 해석을 쓰고, 각주에 원문 및 쪽수만을 표시하기도 함.

8) Он не подумал, какое имя заслуживал он сам, опутывая друга коварством и нанимая для низкой клеветы, для злодейских намерений подобных существ! (с. 76)

얼굴이 첫 번째 반박에서 노을빛처럼 붉어지고 그의 눈이 논쟁할 때마다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러나 대신 자신의 실수를 느끼자마자 그는 울그락불그락해져 눈물을 보일 지경까지 됩니다. “내 잘못이오 - 그는 말합니다 - 용서해 주시오. 내 잘못을 없애주시오. 내가 죄인이고 당신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잊어주시오!” 그는 매우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그 마음은 태양빛과 지옥의 불꽃으로부터 확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⁹⁾

아말라트의 성격묘사 중에서 베르홉스키는 “불같이 참을성 없는 정열”이 그에게 있다고 쓰고 있다. 백은 모든 것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한마디로 그는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행동한다. 베르홉스키의 진술이 좀 더 비취주고 있는 거친 야성의 동물 같은 이미지는 아말라트의 행동 묘사에 있어 화자에 의해 여러 곳에서 반복된다. 유사하게 베르홉스키가 사용하는 어법인 “огонь”, “загораться” 등도 아말라트의 감정이 강렬하고 위험하게 바뀌는 그러한 급작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용된다. 베르홉스키가 여기서 주장하는 통제될 수 없는 열정은 일반적으로 마를린스키가 카프카스인들, 특히 아말라트의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비판적인 새로운 특징으로 판명된다.

베르홉스키는 자신의 약혼녀에게 카프카스에 대한 좀 더 긴 묘사를 쓰는데,

9) он пристрастился к чтению и к сочинению. Говорю «пристрастился», потому что каждое его желание, прихоть, воля есть страсть пылкая, нетерпеливая. Трудно вообразить, еще труднее понять европейцу вспыльчивость необузданных или, лучше сказать, разнузданных страстей азиатца, у которого с самого младенчества одна воля была границей желаний. Наши страсти - домашние животные или хоть и дикие звери, но ручные, смиренные, выученные плясать по веревке приличий, с кольцом в носу, с обстриженными когтями; на Востоке они вольны, как тигры и львы. Любопытно взглянуть на лицо Амалата, каким заревом загорается оно при первом противоречии, каким огнем загораются очи при каждом споре; но зато, едва почувствует он свою ошибку, он краснеет, бледнеет, готов плакать. "Я виноват, - говорит он, - прости меня, тахсырумдан гичь (уничтожь вино), забудь, что я был виноват и что ты простил меня!" Он имеет предоброе сердце, но сердце, готовое вспыхнуть и от солнечного луча и от адской искры. (с. 45)

그 속에서 그는 “아시아적”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아시아, 인류의 요람을 떠나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이성(이성)은 기저귀속에 남아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아시아적 생활양식의 부동성은 놀랄만합니다. 아시아를 개선하고 교육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분쇄되어옵니다; 이곳은 결정적으로 시간이 아닌 공간에 속합니다. 인도의 브라만, 중국의 만다린, 페르시아의 벡, 산의 봉건영주 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슬픈 진실입니다! 그들은 비록 다채롭고 생생하지만 단조롭고, 무정한 본성을 그림니다. 정복자의 칼과 채찍은 마치 물위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 것처럼 그들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책과 선교사의 예는 어떤 사소한 영향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변화시켰지만 결코 낮은 지식이나 또는 용감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나는 노동의 땅으로 가기 위해 과실의 땅을 떠납니다. 모든 유용한 것의 위대한 발명가의 땅, 매력적인 자연의 품속에서 몽매에 빠져 잠든 인간 영혼을 깨우는 이 자명종의 위대한 활력소의 땅으로. 사실 이곳 자연은 너무도 매혹적입니다!¹⁰⁾

이 인용 부분은 동양에 대한 서구의 많은 개념 방식에 있어서 전형적이다.

10)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покидаю Азию, эту колыбель рода человеческого, в которой ум доселе остался в пеленках. Изумительна неподвижность азиатского быта в течение стольких веков. Об Азию расширились все попытки улучше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она решительно принадлежит не времени, а месту. Индийский брамин, китайский мандарин, персидский бек, горский уздень неизменны, те же, что были за две тысячи лет. Печальная истина! Они изображают собою однообразную, хотя и пеструю, живую, но бездушную природу. Мечи и бичи покорителей не оставили на них, как на воде, никаких рубцов; книги и примеры миссионеров не произвели ни малейшего влияния. Иногда меняли они еще пороки, но никогда не приобрели чужих познаний или доблестей. Я покидаю землю плода, чтобы перенестись в землю труда, этого великого изобретателя всего полезного, одушевителя всего великого, этого будильника души человеческой, заснувшей здесь негою, на персях прелестницы природы. И в самом деле, как прелестна здесь природа! (с. 77)

이곳은 인류의 발생지이다. 그러나 이곳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이곳은 서구에 의한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수단을 통해서건 혹은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건 이곳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아무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베르홉스키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변화하는 유일한 것은 “황색인종”이 불멸의 미개인이 되는 어떤 새로운 방식에 있다. 베르홉스키는 이것을 “노동의 땅”으로서의 러시아와 비교하면서 “과실의 땅”이라고 부른다. 그는 더 나아가 동양을 인류의 기원으로서 묘사한다. 즉, “과실의 땅”은 인간이 자신들의 행복과 음식을 위해 힘써 일하지 않아도 되었던 에덴동산을 말한다.¹¹⁾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부정적인 함축을 내포하고 있다. 동양은 노동이 없는 땅으로서 그곳의 주민들은 게으르고, 관대하며 방탕한 삶의 방식을 이끈다는 것을 함축한다. 베르홉스키가 주는 카프카스와 그곳 민족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은 배움과 진보할 수 없는 반(半)-인간들이 거주하고 있는 태고의 뒷에 걸린 장소이다.

III. 동양화된 타자로서의 카프카스

마를린스키는 아말라트를 열정의 노예가 될 정도로 극단적인 열정적 인물로 보여주고 있다. 이 통제되지 않는 열정은 아말라트로 하여금 차례로 맹세하고 맹세를 파괴하도록 이끈다.¹²⁾ 소설을 통해 마를린스키는 주의 깊게 열정과 이성 사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과 진지한 생각 사이의 이분법을 만든다. 카프카스인들은 감정과 연결되고 러시아인들은 이성과 연결된다. 이 타자가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서구의 많은 동양화된(orientalized) 작품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마를린스키는 푸쉬킨이 시작한 카프카스의 동양화를 지속한다.

아말라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지만은 않는다. 그는 극단적으로 모든 감정을 경험한다. 칸은 아말라트의 이러한 본성을 잘 이해했

11) Susan Layton. Op. cit., p. 117.

12) 이 두 특징은 마를린스키가 푸쉬킨의 카프카스 묘사에 주로 덧붙인 것이다.

고, 그에 따라 반응한다. 아말라트의 강렬한 정열은 칸의 딸 셸타네타와의 관계에 의해 보다 더 잘 드러난다. 부상을 당해 의식 없는 채로 도착한 후 깨어난 아말라트는 그녀와 곧바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셸타네타 역시 그의 열정에 지배되어 그의 사랑에 보답한다. 갑작스럽고 깊은 사랑에 휩쓸려 그는 자신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는다. 대신 그는 셸타네타의 순진함에 의해 인류타락이전의 존재 상태로 옮겨지게 된다.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존재 앞에서 아말라트는 그녀가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욕망들을 망각했다. 그리고 미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지고지순한 행복 속에 녹아들면서 그는 과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¹³⁾ 심지어 자신의 열정이 성적인 특징을 결여할 때조차 그는 그 열정을 강하게 느낀다. 그는 순진함으로 되돌아가며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베르홉스키 자신이 위에서 인용한 인용문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동양에 대한 서구의 대표적인 생각이다.¹⁴⁾

카프카스인들에 대해 화자가 보여주는 또 다른 주요 개념은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열정을 여과할 수 없는 아말라트의 무능력과 그의 열정적인 감정이다.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 아말라트는 한 사람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게끔 하는 갈등의 맹세를 하게 된다. 그의 첫 번째 맹세는 자신의 말이 죽었을 때 자기 연민과 절망으로부터 그를 구해준 아흐메트-칸에게 한 맹세이다. 열정이 고조된 순간에 이루어진 이 맹세는 후에 그가 내린 또 다른 감정적 결정인 자신의 갑작스럽고 깊은 셸타네타에 대한 사랑에 의해 시험받게 된다.

그러나 이 두 맹세는 이후 또 다른 갑작스럽고 강한 열정의 순간 속에서 내버려진다. 습격이 전적으로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아말라트는 칸이 자신에게로 와 징병을 하던 때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러시아인들에게 의식이 없는

13) Подле этого детски невинного существа забывал Амалат желания, которых она еще не знала, и тая в неизвестном, непонятном для него наслаждении, он не думал ни о прошедшем, ни о будущем. (с. 24)

14) Said, Edwar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9, p. 109.

채로 사로잡힌다. 그는 예르몰로프에 의해 처형이 결정되나 이상적인 젊은 장교인 대령 베르홉스키가 끼어들어 죽음과 감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아말라트는 대령의 관용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또다시 자신의 행동을 감정에 내맡긴다: “러시아인들이 나를 정복했어!”라고 외친다. “대령, 내가 당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러시아 짜르의 충직한 신하요, 나의 영혼과 칼을 바쳐 러시아 사람들의 진정한 친구요.”¹⁵⁾ 이제 그는 동료 카프카스인들과 러시아인들에 의해 구제된 자신의 삶을 갖게 된다. 이 사건 이후 아말라트는 열렬한 감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자에게 영원히 봉사할 것을 맹세한다. 그의 해방된 감정과 이러한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인해 아말라트는 자신의 맹세들 중 하나를 파기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아말라트가 느끼는 이러한 강렬한 감정은 이후 부정과 거짓을 만들어낸다. 마를린스키는 아말라트와 보다 확대하여 카프카스인들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지적한다. 푸쉬킨의 작품에서 언급된 이러한 특징은 화자가 초점을 맞추는 카프카스인들의 부차적인 새로운 특징이다.

IV. 실패한 문명화와 타자의 비극

마를린스키 작품은 카프카스에서 만나게 되는 폭력, 통제되지 않는 감정, 기만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을 베르홉스키와 아말라트 사이의 관계를 통해 제공한다. 즉, 교육과 연관된 문명화라는 러시아의 평화안은 카프카스인들을 교정하고 이 지역에 폭력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아말라트를 죽음에서 구한 다음 베르홉스키는 그에게 감정에 족쇄를 채우고 이성과 논리를 보다 더 의지하도록 가르친다. 이를 통해 그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칠고 야만적인 동양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자 한다. “그는 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에

15) Русские меня победили... (...) Простите полковник, что я думал худо обо всех вас. С этой поры я верный слуга русскому царю, верный друг русским, душой и саблею. (с. 44)

게서 충성된 신하를 발견할 수 있지요. 관대함은 절대 헛되이 버려지지 않지요.”¹⁶⁾ 베르홉스키는 예르몰로프에게 말한다. 이것은 베르홉스키와 그의 행동을 가장 잘 특징지어주는 겸손과 연관된 일종의 이상주의이며 희망이다. 그는 아말라트 속에 있는 동물적 근성이 극복될 것이며 벡이 러시아 사회의 문명화된 일원이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는다.¹⁷⁾

약혼녀 마리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베르홉스키는 카프카스인들이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야만적이지 않으며 대신 환경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창한다. “나의 아말라트는 비밀이 많고 의심이 많습니다.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의 젖을 빨 때부터 생겨나서 자기가 자란 땅의 공기를 숨 쉬듯 자연스럽게 오래된 습관을 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을 그토록 오랫동안 통제했던 페르시아의 야만적인 전제주의가 카프카스의 타타르인들에게 최저수준의 열정을 품도록 했고 가장 업신여길만한 음모를 명예 안으로 끌어들이었습니다.”¹⁸⁾ 이것은 좀 더 동방적인 동양, 페르시아의 영향이다. 그것은 카프카스의 원주민의 특성을 파괴했다. 그러나 이것은 뒤집어질 수 있는 과정이다. 베르홉스키는 마리아에게 설명한다.

16) Он молод, и Россия может найти в нем верного слугу... великодушии никогда не падает напрасно. (с. 44)

17) 베르홉스키는 포트르 대제 이후부터 이어져온, 카프카스에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사실상 설명하는 이데올로기를 명시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스스로를 포트르 대제의 추종자로 파악한다. 포트르 대제가 러시아를 유럽에 연결시켰듯이 베르홉스키는 다게스탄을 러시아에 연결시키고자 한다. 포트르 대제와 마찬가지로 베르홉스키도 “문명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포트르 대제가 러시아 사람들을 비유럽인이라는 망각으로부터 구해냈듯이 베르홉스키는 아말라트와 그의 사람들을 무지함으로부터 구해내려고 계획한다. 그러나 베르홉스키의 삶 자체가 “동양의 다른 것”을 문명화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의 헛됨을 깨우쳐주는 하나의 교훈이 된다.

18) Амалат мой скрытен и недоверчив. Я не виню его. Я знаю, как трудно переломить привычки всосанные с матерним молоком и с воздухом родины. Варварский деспотизм Персии, столь долго владевший Азербиджаном, воспитал в кавказских татарах самые низкие страсти, ввел в честь самые презрительные происки. (с. 54)

그는 선하기 짝이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햇빛으로 인해서도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고 지옥의 불꽃으로 인해 타오를 준비도 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자연은 그의 출생을 축하하여 도덕적인 의미에서 또 물리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을 그에게 선물했지만 민중들의 편견과 무관심한 양육이 이런 자연의 선물들을 완전히 불구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의 이성이란 온갖 모순과 가장 어리석은 생각들, 그리고 가장 상식적인 개념들의 굉장한 잡탕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추상적인 대상을 단순하게 이야기해주면 놀라울 정도로 재빨리 그것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가장 친근하고 가장 명백한 진리에 대해 완강하게 저항하기도 하는데 이로부터 전자, 즉 추상적인 대상을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지만 다른 것, 즉 후자는 기존의 신앙과 인상들에 의해 그에게 차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낡은 것을 다시 짓는 것보다는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¹⁹⁾

베르홉스키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아말라트의 카프카스적 열정과 통제 의 결여가 그의 동양적 교육과 연관되며 그의 인간성을 가린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보다 고귀한 문명화된 문화에 노출됨으로써 드러날 필요가 있다. 베르홉스키가 착수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베르홉스키는 그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고 그가 “러시아화 되기”를 희망하면서 아말라트의 정신을 교육하기 시작한다.²⁰⁾ 아말라트의 문명화의 성공적인 증거는 아말라트의 수기이다. 아말라트

19) Он имеет предоброе сердце, но сердце, готовое вспыхнуть и от солнечного луча и от адской искры. Природа на зубок подарила ему все, чтобы быть человеком в нравственном и физическом смысле, но предрассудки народные и небрежность воспитания сделали все, чтоб изурочить, изувечить эти дары природы. Ум его - чудное смешение всяких несообразностей, мыслей самых нелепых и понятий самых здравых. Иногда он чрезвычайно быстро схватывает предметы -отвлеченные, когда их просто излагают ему, и нередко упорно противится самым близким, самым очевидным истинам, оттого, что первые для него вовсе новы, а другие заслонены уже от него прежними верованиями и впечатлениями. Начинаю верить, что гораздо легче строить вновь, чем перестраивать старое. (с. 45)

의 수기는 그가 이제 읽고 쓸 줄 아는 한에서 그의 정신에 대한 베르홉스키의 교육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수기는 또한 일종의 베르홉스키의 봉사에 의해 이끌어진 그 주변 세계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정신을 보여준다. “나는 지식과 어둠, 안개의 산을 오르고 있다”(я всхожу на гору познания из мрака и тумана)라고 아말라트는 쓴다. “나는 놀라버렸다. 왜와 어떻게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어째서 이전에는 내 마음 속에 떠오르지 않은 것일까?”(Дивлюсь, как самые простые вопросы *отчего* и *как* не западали мне в голову прежде?) (с. 46) 좀 더 이후의 기재사항에서 아말라트는 자신의 성장하는 자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지형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나는 타타르인들이 이 세상의 한 귀퉁이를 점하고 있다는 것, 유럽인들과 비교해서 그들은 불쌍한 야만인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말타기 명수라는 것 뿐 아니라 그들의 전체적인 기질이 과연 어떤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으며 알지도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렁이들 사이에서 빛나는 지렁이가 구태여 될 가치가 있는 일일까? 그런 고통스러운 진실 속에서 승승장구하기 위해 정신을 단련하는 것이 과연 가치있는 것일까?”²¹⁾ 아말라트는 읽고 쓰기와 같이 실제 기술을 배울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세계관과 그와 그의 카프카스 동료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얻게 된다. 그는 그와 그의 주민들이 러시아의 팽창에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가 문명과 교육을 가져다 줄 때, 그들이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말라트는 러시아 편으로 개종한다.

아말라트의 수기가 아말라트 정신의 성공적인 교육을 보여준다. 그의 행동은 친구의 영혼에 대한 베르홉스키가 시도한 교육의 열매를 드러내준다. 대령

20)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의 재교육의 좋은 예는 사냥을 나갔을 때 아말라트가 돌진하는 수탉지를 죽임으로써 베르홉스키를 구할 때이다.

21) Описание земель показало мне, что татары занимают уголок света, что они жалкие дикари в сравнении с европейскими народами и что о целом составе их, не только об их наездниках, никто не думает, не знает, да и знать не хочет! Стоит ли же труда быть светляком между червями? Стоило ли напрягать ум, чтобы убедиться в такой горькой истине! (с. 47)

을 만나기전 아말라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한 맹세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신뢰받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열정의 노예였다. 대령의 교육 프로그램 이후 아말라트는 이성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완화시키기 시작한다. 이에 대한 좋은 예를 거의 죽어가는 셀타네타를 보기 위해 아흐메트-칸의 마을로 되돌아간 때에서 볼 수 있다.

교육받고 러시아화 된 아말라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결정적이고 합리적 선택인 의무감에 따라 행동한다. 그는 베르홉스키의 교육 프로젝트를 받아들였고 그의 행동은 여기서 성공을 거두게 된다. 아말라트는 베르홉스키가 나타나기 전 세 번이나 러시아인들에 대한 맹세를 파괴했으며 네 번째로 러시아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맹세했을 때 그는 칸과 셀타네타에 대하여 두 번 더 맹세를 파괴하게 된다. 통제되지 않는 열정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맹세로 이끄는 것이다. 그런 그가 이제 갑자기 베르홉스키에 대한 자신의 가장 최근의 맹세를 파괴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한다. 그는 선에 대한 감사의 끊어지지 않는 축쇄가 자신에게 운명적으로 채워졌음을 셀타네타에게 말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에 만족하지 못한다.

오, 당신의 베르홉스키를 잊으세요, 러시아 친구들과 데르벤트의 미녀들도 잊으세요!... 살인으로 획득해낸 전쟁과 영광도 잊으세요. 피투성이가 된 당신을 본 그 순간부터 저는 피를 증오하게 되었어요.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마다 누이와 어머니, 혹은 사랑스런 연인의 마르지 않는 눈물이 서려 있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몸서리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산에서 평화롭고 안정되게 사는 데 무엇이 더 필요해요?²²⁾

아말라트는 그녀를 위해서 그의 주민들의 가장 신성한 관습(적의)과 그의

22) О, забудь своего Верховского, забудь русских друзей и дербентских красавиц!.. Забудь войну и славу, добытую убийствами. Я ненавижу с тех пор кровь, как увидела тебя, ею облитого. Не могу без содрогания вздумать, что каждая капля ее стоит неосушимых слез сестре, или матери, или милой невесте. Чего недостает тебе, чтобы жить мирно, покойно в горах наших? (с. 63)

종교(이슬람)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함께 함으로써 그것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만큼이나 러시아에 대한 자신의 맹세를 또한 소중히 여긴다. 아말라트가 러시아에 붙이는 명칭인 “благодатный”는 러시아의 거대하고 비옥한 대지보다 더 많은 것을 함축한다. 아말라트에게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러시아”는 이전의 그의 적에 대한 심경의 변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베르홉스키가 그를 위해 했던 것을 보여준다. 대령은 그의 정신과 영혼을 교육시켰다. 베르홉스키는 그의 인간성을 드러내주었고 문명화된 방식으로 사는 법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아말라트가 셀타네타에게 자신과 함께 도망하자고 했을 때 마음에 품었던 복을 주는 러시아이다. 그는 그러한 도피가 셀타네타를 교육시키고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기보다 아는 것이다. 아말라트를 통해 마를린스키는 교육의 힘과 보다 중요하게는 미개인을 문명화하는 러시아 문화의 힘을 보여준다. 아말라트는 이제 자제하는 법을 배운다. 그의 교육은 성공적이며 아말라트는 러시아화 되어간다. 그러나 베르홉스키에게 던지는 예르몰로프의 경고 - “그를 믿지 마십시오, 당신 가슴 속에 있는 뱀을 따뜻하게 하지 마십시오.”(не доверяйся же ему, не отогревай змеи на сердце.)(c. 44) - 는 베르홉스키의 화해와 아말라트 교육이 그들이 느끼는 것만큼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셀타네타와 함께 도망가고자 하는 아말라트의 계획을 안 칸은 그에게 베르홉스키에 대한 맹세를 파괴하고 러시아인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만이 자신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한다. 셀타네타 없이 데르벤트로 돌아온 아말라트는 점점 더 참을 수 없고 화가 치밀기 시작한다. 3개월이 지나자 베르홉스키가 아말라트를 이끌었던 교육과 정신적 각성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맞붙을 놓기 시작한다. “베르홉스키는 내 눈을 열어 내 동포 시골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게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과 함께 러시아인들의 결함들도 보았는데 그것은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이 유용한 것인지 알며 좋은 사례들을 보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치 그들의 목적과 활발한 본성을 잊기라도 한 듯이 조금씩 조금씩 동물과도 같은 공허함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²³⁾ 아말라트의 정신 교육은 여기서 양날의 칼로서 기능한다. 그는 자신의 민족들 속에서 결점을 본다. 그러나

또한 카프카스인들에 대해 아마도 모든 점에서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이른바 문명화된 러시아인들 역시 그들 자신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아직은 그것이 밖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말라트는 러시아인들을 동물처럼 되게끔 만든다는 이유로 카프카스의 환경을 비난한다. 즉, 카프카스 지역이 매우 미개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만일 문명인조차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낼 경우 야만인이 될 수 있음을 넌지시 암시한다. 그러므로 아말라트가 러시아인들 속에서 보는 결점은 카프카스와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이야기 속에서 베르홉스키의 문명화의 임무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계몽된 아말라트는 이제 러시아인의 행동 속에서 무례함과 위선을 본다. 그 역시 자신의 땅과 주민들의 동양화에 참여한다. 아말라트는 칸이 러시아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한 그를 결코 자기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칸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셀타네타와의 결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베르홉스키는 주어지지 않는 것만 향후 수반될 안전 문제를 예상하여, 아말라트로 하여금 데르벤트를 떠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아말라트는 베르홉스키가 자신을 칸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화가 났으며 그 속에서 베르홉스키가 가진 위선과 알팍한 우정을 본다. “알팍한 우정”에 대한 아말라트의 불평은 논리와 이성을 통해 도달된 결정이라기보다는 그가 자신의 친구의 거절을 감정의 결핍의 증거로 본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아흐메트-칸이 셀타네트와 아말라트를 함께 있게 한 것은 백과의 결혼을 통해 군인들을 증강하여 전쟁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는 이유에서였다. 베르홉스키와 그의 문제의 중심에 놓여있는 열정은 러시아 친구를 향한 아말라트의 의견과 감정 변화에 주된 이유이다. 셀타네타와 떨어져 지내는 3개월 동안 열정과 고조되는 감정으로 인해 아말라트는 그녀와 함께 가정을 꾸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 그녀에 대한 아말라트의 감정이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 23) Верховский открыл мне глаза на недостатки моих одноземцев, но с этим вместе я увидел и недостатки русских, которые тем больше непростительны, что они знают полезное, выросли на добрых примерах, и здесь, будто забыв свое назначение, свою деятельную природу, понемногу утопают в животном ничтожестве. (с. 68)

선택의 도덕적 확실성에 의해 억제되는 한, 러시아인 친구와 러시아 교육에 대한 그의 믿음도 점차 부식되어지게 된다. 베르홉스키가 그렇게 엄격하게 옹호하는 이성과 논리는 셸타네타를 향한 소모되지 않는 그의 사랑에 직면하여 아말라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시작이 된다.

아말라트의 문명화는 중지되게 되며 벡은 이전 방식의 행동과 생각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는 러시아 진영을 몰래 빠져나와 은밀히 칸을 만날 결정을 한다. 칸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다.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하더라도 아말라트가 베르홉스키와 러시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 딸이 아말라트로 하여금 대령을 배신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자 칸은 아말라트의 어머니에게 뇌물을 주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 베르홉스키가 아말라트를 체포하여 시베리아로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꾸며낸다. 칸이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키고자 한다는 얘기를 들은 아말라트는 분노와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다. 칸이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아말라트에게 해주자 감정이 그를 조종하게 되고 이성은 미끄러져 나가게 된다.

여태까지 그의 내부에 녹아들어 있던 즐겁고 고결하며 숭고한 것들이 갑자기 확 불타올랐고 재가 되어버렸다. 그가 그토록 기꺼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분노의 화재 속에서 파괴되었고 무너졌다. 몇 번 그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떤 병적인 신음 속에서 말이 사그라져 버렸다. 마침내 베르홉스키가 길들이고 아말라트가 수면 상태 속에서 통제하고 있던 거친 짐승이 사슬을 끊고 뛰쳐나왔다. 격노한 제후의 입에서 저주와 험박이 쏟아져 나왔다.²⁴⁾

벡을 문명화시키고자 하는 베르홉스키의 노력은 이성 혹은 논리에 대한

24) Все, что доселе таилось в нем утешительного, благородного, высокого, вспыхнуло вдруг и превратилось в пепел. Все, во что он веровал так охотно и так долго, рушилось, распалось в пожаре негодования.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рывался он говорить, но слова умирали в каком-то болезненном стоне, и, наконец, дикий зверь, которого укротил Верховский, которого держал в усыплении Аммалат, сорвался с цепи: поток проклятий и угроз пролился из уст разъяренного бека. (с. 72)

생각조차 근절시켜면서, 아말라트의 감정이 돌발하자마자 순식간에 원상태로 되돌려진다. “그의 친구와 멘토 베르홉스키의 도움과 함께 아말라트에 의해 새롭게 얻어진 모든 특성들은 그의 본성과 환경 앞에서 무력한 것으로 판명된다.”²⁵⁾ 베르홉스키의 문명화 임무는 셀타네타를 향한 아말라트의 감정, 보다 중요하게는 배신에 대한 그의 분노에 직면하여 실패로 되돌아간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아말라트는 대령의 모든 작업이 아마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맹렬한 분노를 베르홉스키를 향해 직접 쏟아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베르홉스키의 공범자인 샤말과, 지금 셀타네타에게 구혼 중인 그의 아들을 향한 복수를 기도한다.

아말라트는 본능적으로 샤말과 그의 아들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우선 뻔뻔스러운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의식적인 선택이다. 이것은 백의 첫 번째 복수의 목표가 베르홉스키가 되어야만 한다고 칸이 암시할 때 명백해진다. 아말라트는 이러한 생각에서 주저한다. “베르홉스키! (...) 그래, 그는 나의 적이다. 그러나 그는 나의 친구였다. 그는 수치스런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Верховский! (...) Да, он враг мой, но он был моим другом, он избавил меня от позорной смерти!)(с. 72) 이것은 대령의 문명화 임무의 흔적이 아말라트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그는 베르홉스키를 죽이고자 하는 생각에 저항한다. 그러나 자신의 러시아인 친구를 살해하는 것에 대한 그의 저항은 백이 겪었던 러시아 문화에 대한 개방과 교육보다는 대령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기인한다. 아말라트는 두 구별되는 문명화된, 따라서 러시아적인 접근인 논리와 이성보다는 카프카스적 접근이라고 텍스트가 드러내는, 베르홉스키를 향한 자신의 감정에 의존한다. 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은 아말라트로 하여금 복수를 멈추게 하는 감정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처음에 베르홉스키를 살해하는 것에 대한 아말라트의 저항이 러시아 문명화 임무가 카프카스인들에게서 가질 수 있는 강한 효과에 대한 암시로 나타나는 동안, 그의 머뭇거림의 이유는 논리보다는 감정에 의해 동기화되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베르홉스키와 아말라트

25) Ф.З. Канунова. Указ. соч., с. 211.

들의 우발적인 배신과 죽음으로 이끄는, 칸의 이야기를 지적인 관점에서 아말라트가 의문시하지 못하는 실패이며 러시아의 문명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에 대한 그의 실패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 비꼬면서 화자는 독자들에게 아말라트의 수기로부터의 또 다른 발췌를 제공한다. 그 수기 속에서 우리는 베르홉스키가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글로써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의 결정을 분석하도록 하는 교육을 이용하는 백을 본다. 아말라트는 거짓의 수단을 통해 베르홉스키를 죽이는 것과, 그리고 복수의 탐색의 옳고 그름과 투쟁한다.

형제간의 우의와 형제에 대한 배반, 형제를 살해하는 것... 얼마나 끔찍한 극단들인가! 그리고 그것들 사이에는 오직 한 걸음, 한 순간 만이 있을 뿐이다!...

적을 가만히, 별안간 죽이는 것은 파렴치하고 저열한 것이라고 베르홉스키는 말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달리 그것을 해치울 수 없다면?... 그러나 그를 믿을 수 있는가? 교활한 자는 손 뿐 아니라 내 양심까지도 미리 묶으려는 것이다!...²⁶⁾

카프카스인들은 선하게 될 수도 완전히 인간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때조차도 주로 자신들의 감정에 이끌린다. 러시아인들에게도 베르홉스키가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약혼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와 같이 감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이성 과 논리에 우선적으로 이끌린다.

칸에 의해 조종되고 자신의 정열에 노예가 된 아말라트는 베르홉스키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죽여가는 아흐메트-칸에게 가져오지만 칸은 아말라트를 저주하며, 그를 배신한다. 칸의 가족들 역시 아말라트를 거부한다. 아흐메트

26) Братская дружба и братопредательство, братоубийство... Какие ужасные крайности! И между ними только один шаг, одно мгновение!... Верховский говорил, что убить неприятеля украдкой, врасплох - подло, низко; но если я не могу иначе сделать этого?... Но можно ли ему верить? Хитрец хотел заранее опутать не только руку, но даже и совесть мою!.. (с. 79)

에게 저주 받고 셀타네타에게 배척당한 아말라트는 베르홉스키에 대한 배신과 살해로 인해 러시아인과 카프카스인 양자에게 혐오자로 낙인찍힌다. 젊은 벡은 몇 년 후 아나파에서 러시아인과 싸움하는 용맹한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마를린스키는 이 작품에서 아말라트-벡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이성과 논리를 사용할 수 없는 카프카스에서의 평화로운 문명화의 시도가 매우 정열적인 카프카스인들로 인해 실패할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를린스키가 사용하는 방법은 매혹적이고 지적인 러시아군 대령과, 그리고 그의 정신적 도덕적 교육 프로그램을 잘 받아들이는 매혹적이고 지적인 카프카스인들에 의해 평화로운 문명화된 접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대령은 이 지역의 카프카스인들이 교화되고 문명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강하게 믿으며 이러한 접근은 작품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러시아인에 대한 맹세를 세 번이나 파괴했을 뿐 아니라 칸에 대한 맹세도 파괴한 아말라트는 갑자기 자신의 말대로 베르홉스키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하며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는 것조차 거부한다. 반면에 베르홉스키는 자신의 가르침을 지속하고 카프카스인들의 자연적인 선량함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약혼녀에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아말라트가 베르홉스키를 쏘았을 때, 마를린스키는 이러한 접근이 비극적인 결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한 베르홉스키의 죽음은 카프카스에서의 갈등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의 발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여준다. 러시아 문명과 문화는 카프카스인들의 정신에 단지 일시적인 영향을 끼칠 뿐이다. 미개한 동물은 아마도 가장 교육받은 종족의 내부에조차 계속해서 숨어있을 것이다. 아말라트는 베르홉스키로부터 자신이 받은 교육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그의 감정은 다시금 충분히 되살아나게 된다. 벡은 맹세를 파괴하고 타인을 배신하는 자신의 옛 행동으로 이끄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자신의 과거 옛 방식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므로 러시아 정부의 카프카스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마를린스키는 사실상 이 지역을 평정하기 위한 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는 마지막 장에서 아나파에서의 전투를 통해 이 지역을 보여준다. 카프카스 주민들의 타고난

선과 인간성을 믿는 베르홉스키가 멘토링하고 신뢰했던 카프카스인에 의한 배신은 카프카스인을 이해하고 동감하고자 하는 가장 신실한 시도가 재난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폭력적이고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러시아인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은가에 상관없이 그들을 완전히 문명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들은 신뢰될 수 없다. 게다가 이 지역 자체가 진보된 유럽 문화를 “동물적인 무화”(animalistic nothingness)인 시골수준으로 전락시키면서 국외자에 대하여 비문명화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하다. 군사력이 카프카스인들을 복종시키고 근절하는 데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마를린스키는 카프카스에서의 성공을 위한 러시아의 유일한 방법은 강한 군사력의 주둔과 잔인한 힘을 통해서 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설의 끝부분의 1828년 아나파 전투에서의 강한 러시아 군사력을 보여주는 장면은 이러한 생각을 잘 나타내준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소설의 윤리가 명확해진다. 결국 아말라트를 최후에 가서 죽이는 것은 베르홉스키의 친동생이다. 동생은 아말라트를 적으로서도, 혹은 비정한 괴물로서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죽어가는 아말라트의 모습에 끝까지 태연하기 때문이다. 베르홉스키의 남동생은 러시아 정부의 의지를 수행하고 카프카스에서 자신의 의무를 적절히 완수함에 있어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를 개입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으며 “그 민족들을 재교육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러시아 군인이다.

그가 소설을 제국주의의 힘과 성공에 대한 기록으로 끝마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를린스키는 동정적인 빛으로 카프카스인들을 묘사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아말라트라는 인물 속에서 마를린스키는 자신의 지도력에 호소하는 낭만주의적 주인공을 창조한다. 여인에 대한 사랑과 교전중인 두 그룹에 대한 충성 사이에서 고통 받는 매력적이고 불같은 젊음은 동정과 감탄을 고무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든다. 아말라트라는 인물을 통해 마를린스키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카프카스인들이 처한 비극적 입장을 보여주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러시아 정부의 편을 들면서도 마를

린스키는 교전중인 두 사회와 두 법 체제 사이에 사로잡힌 원주민의 불가능한 상태를 카프카스 종족들과의 자신의 폭넓은 경험에 기인하는 동정심과 이해를 갖고 세련될 정도로 묘사한다.

이 지역을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군사력이라는 그의 결론에 신뢰를 주는 것은 바로 그의 이러한 경험이다. 마를린스키는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 알았고 그래서 카프카스에 관한 그의 주장과 결론은 잘 알려진 믿을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이상적인 대령의 진술 속에서 발견된다: “낡은 것을 개축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나는 믿기 시작하고 있다.”(Начинаю верить, что гораздо легче строить вносью, чем перестраивать старое)(с. 45) 이 지역에서의 평화로운 재교육은 러시아인 친구에 대한 아말라트의 배신에 의해 증명된 것처럼 희망이 없다. 그러나 카프카스에서의 마를린스키의 광범위한 경험은 또한 독자들을 망설이게 할 것이다. 왜 대부분의 동시대인들보다 이 종족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완전한 파괴를 옹호하는가?

V. 나오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스투쾨프-마를린스키는 카프카스에서 러시아가 무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유로 카프카스인들의 통제될 수 없는 감정과 고유한 기만성에 초점을 맞춰 제시한다. 그는 아말라트의 정신과 영혼을 교육하려는 베르홉스키의 시도에서 보이는 카프카스에서의 갈등에 대해 보다 동정적인 문명화의 방법을 채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를린스키는 카프카스를 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질적으로 평화로운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아주 소수에 의해 지지되는 입장을 옹호한다. 이 소수는 카프카스인들이 설득될 수 있는 사람이며 러시아의 보다 진보된 문명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 필요한 모든 것은 그들을 문명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빛을 보게 될 것이며 저항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베르홉스키는 소설 속에서 이에 대한 주요 지지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평화롭게 문명화하려던 바로 그 카프카스인에 의해 살해된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명백하다: 카프카스인들은 문명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여러분을 배반할 것이다. 이렇듯 베스투체프-마를린스키는 러시아와 카프카스의 힘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면적인 싸움을 묘사하고 그것이 러시아가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오직 가능한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이 소설을 종결한다.

하지만 마를린스키의 러시아 정부와의 역사 그리고 그의 유형과 카프카스 민족들에 대한 지식 등을 고려해볼 때 우선 이 소설의 전반적인 명확한 메시지 이면의 의미를 들여다볼 수 있다. 꼼꼼한 독서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의 카프카스 주둔에 대한 비판적인 암시와 음영을 알아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카프카스인들은 본능과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동물에 다름 아니다 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이성과 논리의 서구적 특성을 함께 가르치는 것은 마를린스키의 약한 아호메트-칸이다. 칸은 좋은 지도자이자 사랑스러운 아버지이며 동시에 감정을 잘 다스리고 깊은 숙고와 계획을 통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제시된다. 심지어 칸의 아말라트에 대한 기만적 조종도 주의 깊게 계획되고 실행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를린스키는 카프카스인들이 자신들의 풍부한 문화와 기능적인 사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문명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던지시 내비친다. 이러한 부분은 마를린스키가 데카브리스트 작가로서 엄청난 감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작품 속에 잘 감추어져있다.

술탄의 본 지역인 아브리아에 중대한 특권을 제공한다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베르홉스키가 분명히 하기만 했더라면 아말라트는 민족 간 다리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 결과가 특정 종류의 러시아 식민정착을 여전히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러시아 정부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기본적인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두 번째로, 만약 술탄의 악행이 완전히 드러났다고 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이 지역의 통치자가 러시아인들과 화해와 협력하는 데 보다 더 개방적일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할 점은 가장 중요한, 상호 대립되는 의미 구조이다. 즉 러시아 대 지역 부족 그리고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이다. 이것은 아말라트에 대한 좋고 나쁜 영향력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나타내지

않는다. 물론 대부분의 베스투체프의 독자들은 뚜렷한 구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작가는 독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리라는 것을 심중팔구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지역 문화에 대해 보여주는 관심과 존중으로 볼 때 베스투체프 자신은 산악민들이 나쁘다거나 이슬람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달리 말하자면, 한 사람은 좋고 다른 한 사람은 나쁜, 두 극단적인 인물에게 영향을 받게 된 것 말고도, 아말라트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러나 똑같이 정당한 문명의 교차로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하나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낯선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가치체계의 충돌에 대한 베스투체프의 그림은 러시아인들과 그들의 “문명화”의 사명에 호의적이다. 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의 존중과 전진하는 러시아 군대 및 정착민들을 마주한 카프카스 지역 주민들의 곤경에 대한 그의 동정은 명백하다. 아말라트가 겪고 있는 재교육의 폭력적인 과정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슬프고 비극적이기도 하다.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맹세를 세 번이나 바꾸는데 매번 그 속에는 완전한 진심이 담겨져 있었다.

❖ 참 고 문 헌

라승도. 「타자의 얼굴: 현대 러시아 영화의 카프카스 이미지」, 라승도 편. 『러시아 인문공간: 자연·인간사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2.

박혜경. 「낭만적 민족주의와 역사문학 장르: 베스투체프의 『배신자』와 푸쉬킨의 『보리스 고두노프』」, 『슬라브학보』 Vol.26, No.3, 2011.

Бэги, Льюис. *Александр Бестужев-Марлинский и русский байронизм*. СПб., 2001.

Бестужев-Марлинский А.А. *Кавказские повести*. СПб., 1995.

Канунова Ф.З. *Эстетика русской романтической повести (А.А. Бестужев-*

Марлинский и романтики-беллетристы 20-30-х годов XIX в.). Томск, 1973.

- Hokanson, Katya. *Writing at Russia's Border*. Univ. of Toronto Press, 2008.
- Layton, Susan. *Russian Empire and Literature: Conquest of the Caucasus from Pushkin to Tolsto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4.
- Leighton, Lauren G. *Alexander Bestuzhev-Marlinsky*. Boston: Twayne Publishers, 1975.
- Russian Subjects: Empire, Nation, and the Culture of the Golden Age*. (ed.) Greenleaf, Monika & Moeller-Sally, Stephen.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98.
- Shkandrij, Myroslav. *Russia and Ukraine: Literature and the Discourse of Empire from Napoleonic to Postcolonial Times*. Montreal & Kingston, McGill-Queen's Univ. Press, 2001.
- Said, Edwar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9.
- Thompson, Ewa M. *Imperial Knowledge: Russian Literature and Colonialism*. Westport, Greenwood Press, 2000.

❖ ABSTRACT

Russian Imperialist Ambition
in A. Bestuzhev-Marlinsky's *Allamat-Bek*

Kim, Sung IL

The theme of Caucasus in Russian literature stemmed from A. Pushkin's *The Prisoner of the Caucasus* (1820) became expanded when it reached to writer Bestuzhev-Marlinsky. The writer's *magnum opus*, *Allamat-Bek* (1832), was based on a real historical event. Being proponent to the side of Russian ideology, this work strongly presents that the primary task the Russian Imperialist government paused in this region at the time was civilization of the Caucasus through diplomatic and humanistic ways.

There are three main protagonists in this work, but Berkhovsky and Sultan Akhmet-Khan are the characters who stand for the contradictory views toward the "war between Russia- Caucasus." While the former, Berkhovsky, thinks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parties might be solved by means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is opposed to any of peaceful completion of this war. Allamat-Bek, the main hero of this work, however, passes away,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loyalty and renegeation.

The author goes on to describe that Berkhovsky considers the Caucasus as Eden, the land of fruits, unlike Russia which appears as the land of labor. Yet, for Berkhovsky the Caucasus is presented as the land which needs enlightenment. This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alled typical Western Orientalism.

Bestuzhev-Marlinsky does not take side of either evil or good between the Russian Orthodoxy and the Islam, that is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opponent parties. The writer, instead, argues that this is just difference between the familiar and the strange, that is, the *svoi* and the *chuzhoi*. What is the very picture the writer wants to show the reader, then, is that it is petty and sad to see the unavoidable violent progress which happened and experienced by the indigenous

people during the civilization of the Caucasus by the Russian Imperialist government.

Key Words

알렉산드르 베스투쨌프-마를린스키, 『아말라트-벡』, 카프카스, 러시아 정교, 문명화
Aleksander Bestuzhev-Marlinsky, *Ammalat-bek*, Caucasia, Russian Orthodox,
civilization

논문접수일: 2012. 11. 10.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